

# 유네스코투어

2022년 10월 11일 화요일 / 9:00-12:00

코스: 김대중컨벤션센터 > 5·18민주화운동기록관 >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(GMAP) > 김대중컨벤션센터

\*버스 이동 / 식사 불포함

## 5·18민주화운동기록관

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사업은 인류의 문화를 계승하는 중요한 유산인데도 훼손되거나 영원히 사라질 위험에 있는 기록 유산의 보존과 이용을 위해 1995년 시작되었습니다. 2011년, 5·18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었으며, 2015년 이 기록관이 개관하였습니다.

본 기록관은 민주·인권·평화의 도시 광주가 겪은 이야기를 수집·연구·전시하고 있습니다. 1~3층에는 5·18 민주화운동 당시의 자료와 기록물들을 전시해 놓은 상설전시관으로 생생한 현장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4층은 도서 열람실, 5층에는 각종 기록물이 보존되어 있습니다.

또한 현재 기록관이 위치한 건물은 당시 카톨릭센터로, 6층을 방문하면 당시 광주 교구장이었던 윤공희 신부의 집무실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습니다. (5·18민주화운동기록관 바로가기)



##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

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문학, 음악, 민속공예, 디자인, 영화, 미디어, 음식 등 7개 분야에서 문화·창의성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, 문화융성에 기여하는 도시 중 심사를 통해 선정된 창의도시들의 네트워크를 뜻합니다.

광주광역시는 2014년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선정되었으며, 2022년 3월, 미디어아트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이 개관하였습니다.

세계인권도시포럼 기간 중 1층에 전시되는 '박상화-소요풍정'은 사람과 자연과의 조우를 통한 궁극의 공존을 이야기합니다. 3층에 전시된 '디지털 공명'은 예술을 통해 과거, 현재, 미래가 마주하고 상호작용하는 현상을 고찰하면서 정보 데이터에 기반하는 디지털 예술의 다양한 실험과 방향을 보여줍니다.

